

2020년 10월 3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ECB의 힘과 실적 개선 기대 확산으로 반등 라가르드,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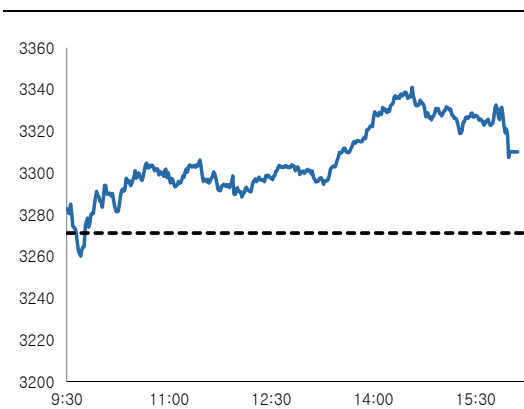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ECB 통화정책회의, 핀터레스트 실적 결과

미 증시는 전일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와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 여기에 전일 장 마감 후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소셜 네트워크 종목인 핀터레스트(+26.92%)로 온라인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 더불어 추가 부양책을 시사한 ECB 통화정책 결과도 긍정적. 다만,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으로 헬스케어 업종이 부진하는 등 차별화 지속(다우 +0.52%, 나스닥 +1.64%, S&P500 +1.19%, 러셀 2000 +1.19%)

미 증시는 ECB 통화정책회의, 대형 기술주 실적 기대로 상승.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리를 동결했으나 경기가 명백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어 유입되는 정보들을 세심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 더불어 정책 도구를 적절하게 재조정 할 것이라며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는 내용을 발표. 실제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유로존 경기는 성장 모멘텀을 잃었으며 뚜렷한 훼손이 나오고 있다” 라고 언급했으며, “이미 재보정을 시작했으며 팬데믹 관련 부정적인 결과에 대처 하고 있다” 라고 주장. 더 나아가 “다음 회의 때 정책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라며 12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시사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

한편, 전일 장 마감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핀터레스트(+26.92%)가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자 온라인 기반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확산된 점도 미 증시 상승 요인. 핀터레스트의 실적 결과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나 광고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형 기술주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전일 관련 기업들이 급락한 점은 MS(+1.01%)의 광고 및 검색 수익이 급감 한 데 따른 것이라면 오늘은 핀터레스트가 되돌렸다고 볼 수 있음. 물론,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코로나 재 확산이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으나 이러한 실적 개선 기대 및 ECB의 결정은 전일 급락을 뒤로하고 반등을 하게 만든 요인이라 볼 수 있음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26.67	-0.79	홍콩항셍	24,586.60	-0.49
KOSDAQ	813.93	+0.96	영국	5,581.75	-0.02
DOW	26,659.11	+0.52	독일	11,598.07	+0.32
NASDAQ	11,185.59	+1.64	프랑스	4,569.67	-0.03
S&P 500	3,310.11	+1.19	스페인	6,411.80	-0.97
상하이종합	3,272.73	+0.11	그리스	564.93	-5.08
일본	23,331.94	-0.37	이탈리아	17,872.28	-0.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시간 외 주가 엇갈린 행보

소셜네트워크 업체인 핀터레스트(+26.92%)는 지난 분기 매출 성장이 4%에서 이번에 58%로 급증하는 등 예상보다 큰 폭의 개선에 힘입어 급등 했다. 이 결과는 이미 스냅(-1.49%)의 실적 발표로 어느 정도 예견 되었으나 그 폭이 컸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영향으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알파벳(+3.05%)과 페이스북(+4.92%)을 비롯해 트위터(+8.04%)의 상승을 견인 했다. 이런 가운데 장 마감 후 알파벳은 양호한 실적 발표 후 6% 상승 중이나 트위터가 실적 발표 후 14% 넘게 급락하자 페이스북은 1% 내외 상승에 그치고 있다. 아마존(+1.52%)은 견고한 실적 발표 불구 자 1% 하락 중이다. 애플(+3.71%)은 예상을 소폭 상회해 그치자 실적 발표 후 4%대 하락 중이다.

넷플릭스(+3.70%)는 장 중에 가격을 인상하자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포드(+2.60%)는 픽업트럭 판매 증가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서비스나우(+5.48%)도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고 모더나(+8.43%)는 코로나 관련 수익이 증가하자 상승했다. 반면, 이베이(-7.46%)는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후 급락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가 축소되자 휴마나(-3.99%) 등 헬스케어 업종이 약세를 보였으나 엑손모빌(+4.43%) 등 에너지 업종은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55%	대형 가치주 ETF(IVE)	+0.47%
에너지섹터 ETF(OIH)	+2.12%	중형 가치주 ETF(IWS)	+1.30%
소매업체 ETF(XRT)	-0.66%	소형 가치주 ETF(IWN)	+1.63%
금융섹터 ETF(XLF)	+0.76%	대형 성장주 ETF(VUG)	+1.28%
기술섹터 ETF(XLK)	+1.67%	중형 성장주 ETF(IWP)	+0.3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56%	소형 성장주 ETF(IWO)	+0.78%
인터넷업체 ETF(FDN)	+1.53%	배당주 ETF(DVY)	+1.53%
리츠업체 ETF(XLRE)	+1.1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3%
주택건설업체 ETF(XHB)	+0.0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4%
바이오섹터 ETF(IBB)	+0.53%	미국 국채 ETF(IEF)	-0.42%
헬스케어 ETF(XLV)	-0.82%	하이일드 ETF(JNK)	+0.26%
곡물 ETF(DBA)	-0.34%	물가연동채 ETF(TIP)	-0.34%
반도체 ETF(SMH)	+2.47%	Long/short ETF(BTAL)	-1.3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16.41	+3.20%	-6.41%	-1.79%
소재	397.45	+2.18%	-3.80%	+0.76%
산업재	641.58	+1.45%	-6.07%	-1.10%
경기소비재	1,208.30	+0.91%	-2.47%	-1.44%
필수소비재	642.43	+0.04%	-4.20%	-3.02%
헬스케어	1,185.17	-0.71%	-5.27%	-3.27%
금융	395.01	+0.68%	-5.50%	-1.54%
IT	1,997.33	+1.89%	-4.25%	-3.71%
커뮤니케이션	198.51	+2.87%	-1.94%	+0.17%
유틸리티	319.92	+0.28%	-2.57%	+4.91%
부동산	213.04	+1.34%	-2.85%	-4.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에 그칠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0% MSCI 신흥 지수 ETF 는 1.01%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2.6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 연준은 FOMC 를 통한 추가 부양책에 대해 신중함을 표명해왔으나, 이날 ECB는 다음 회의 때 추가 정책을 단행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 대선과 코로나 재 확산이라는 불확실성이 상존해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 특히 우편 투표에 집중해 11 월 3 일 현장 투표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현장투표에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편 투표를 둘러싼 마찰이 격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해 미국 발 정치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하기 보다는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증시 상승이 확대된 부분은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대형 기술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유입 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중요하며 오늘 한국 증시는 이를 통한 시간 외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은 6%대 상승 중이나 페이스북은 양호한 실적 발표 불구 트위터가 실적 발표 후 14% 넘게 급락하자 1%대 상승에 그쳤다. 아마존도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1%대 하락하고 있으며 애플도 예상을 소폭 상회한 실적 발표 후 4%대 하락 중이다. 결국 견고한 실적이라는 상승 모멘텀은 선반영이 되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이 가능하나 이 흐름을 지속하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 확대 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3 분기 GDP 성장률 전분기 대비 33.1% 증가

미국 3 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3.1% 증가해 시장 예상(QOQ +30.9%)를 상회했다. 내구재 소비가 82.2% 급증했고 비거주용 고정투자는 20.3% 증가해 기업들의 투자가 늘었다. 개인 소비도 40.7% 증가했다. 그러나 애틀란타 연은이 GDPNow 를 통해 이미 37.0% 급증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예견된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영향은 제한 되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79.1 만건)이나 예상(75.8 만건)을 하회한 75.1 만건을 기록했다. 4 주 평균도 81 만 2,250 건에서 78 만 7,750 건으로 감소했다.

9 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2.2% 감소해 예상(mom +3.5%)을 하회했다. 최근 일부 주택 지표가 둔화되고 있었는데 향후 전망을 알 수 있는 잠정주택지표 둔화는 우려를 높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유로화, ECB의 추가 부양 정책 기대 속 달러 대비 약세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지속되자 3.3% 하락하는 등 전일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여기에 허리케인 제타으로 인한 해양 시추시설 중단 요인이 해소된 점,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속 등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지표 호전과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ECB가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특히 유로존 경기가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는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도 유로화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미국 경제지표 호전과 주가지수 강세로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다.

국채금리는 예상보다 양호한 3분기 GDP 성장률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에 힘입어 상승했다. 더불어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7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9배)을 하회한 2.24배를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63.8%)을 하회한 60.9%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약화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지표 호전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0.6%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유가 하락 및 달러 강세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15% 급등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6.17	-3.26	-11.00	Dollar Index	93.908	+0.54	+1.03
브렌트유	37.65	-3.76	-11.33	EUR/USD	1.1674	-0.61	-1.22
금	1,868.00	-0.60	-1.92	USD/JPY	104.62	+0.29	-0.23
은	23.360	+0.00	-5.46	GBP/USD	1.2926	-0.44	-1.20
알루미늄	1,803.00	-0.36	-2.36	USD/CHF	0.9157	+0.57	+0.95
전기동	6,729.50	-0.27	-2.79	AUD/USD	0.7033	-0.17	-1.19
아연	2,531.50	+0.10	-1.82	USD/CAD	1.3316	-0.05	+1.37
옥수수	398.50	-0.75	-4.26	USD/BRL	5.7719	+0.38	+3.20
밀	603.75	-0.82	-3.05	USD/CNH	6.7066	-0.33	+0.55
대두	1,050.50	-0.40	-2.03	USD/KRW	1131.40	+0.07	-0.13
커피	104.60	-0.38	-1.97	USD/KRW NDF1M	1132.60	-0.26	-0.2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828	+5.70	-2.82	스페인	0.131	-4.50	-9.10
한국	1.520	+2.30	+1.50	포르투갈	0.101	-4.60	-9.70
일본	0.032	+0.70	-0.30	그리스	0.938	-11.00	+1.00
독일	-0.636	-1.10	-7.00	이탈리아	0.724	-4.00	-7.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